

복음과 상담
제21권, 190-221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오 윤 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심리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심리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은 탈진과 부적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탈진의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탈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자아탄력성에 있어서는, 위기대처에 대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탈진의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탈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 사역자의 자아탄력성이 소명의식보다 탈진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사역자의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탈진의 예방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단어: 소명의식, 자아탄력성, 탈진, 청소년 사역자, 부적 영향

• 논문 투고일: 2013년 10월 18일

• 논문 수정일: 2013년 11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11일

*한국성서대학교

I. 여는 글

최근 위기 청소년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개입에 대한 시스템적 체계 구축과 인적 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다.¹⁾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발생은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조기에 개입·중재 되지 못한 경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들이 성인기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²⁾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청소년 사역자들은 청소년시기에 겪는 발달 특성상 변화와 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실적 상황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점점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교회사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과다한 업무와 설교 및 학습교재 준비를 위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에 탈진현상이 자주 발생된다.³⁾

1990년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독교 분야의 탈진에 관한 최근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 목회자를 대상을 하고 있을 뿐 청소년 사역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⁴⁾ 이에 비하여 일반 청소년 지도자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척박한 영적상황이 도래한 한

1) "청소년기회 위기의 아이들", 「KBS 1 TV」, 2013. 8.31.

2) Mark A. Cohen, "The Monetary Value of Saving a High-Risk Yout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 (1998):5-33.

3) 김영동, "교회사에 나타난 청소년 사역",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2011):16-19.

4) 이용우, "목회자의 탈진과 성격유형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2), 1-120.

국 교회학교 일선에서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의 탈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 교회학교 청소년 세대들의 급격한 숫자 감소로 인해 미래교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건강성에 진단과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사역자의 탈진현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관련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탈진현상을 보이는 청소년 사역자 회복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 및 자아탄력성과 탈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펴는 글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소명의식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소명의식의 개념적 이해

라틴어 ‘vocatio’에서 기원된 영어 Calling 즉, 소명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개인의 믿음을 말한다. 구약성경에서 소명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가장 주요한 단어로는 ‘부르다’라는 뜻의 히브

리어 동사 קָרָא (qara)인데, 70인 역에서는 καλέω (kaleo)로 번역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청하고 소환하거나 이름을 지어 자기를 섬기도록 요구할 때 ‘소명적’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창 27:1; 출 24:7; 수 8:34; 민 1:16; 삼상 3:16; 사 43:1; 호 11:1-2). καλέω 는 신약성경에서 약 150회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⁵⁾

Paul Tripp은 사도 바울의 말(고후 5:14-6:2)을 인용하여 소명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⁶⁾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세속적인 직업들도 영적인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일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하였다. 특히, Martin Luther는 독일어 ‘Beruf’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소명을 지상적 노동개념인 봉사의 행위로서 표현했고,⁷⁾ John Calvin은 노동을 보다 더 강조하여, 달란트(talent)라는 표현을 통해 매일의 노동과 소명(직업)을 연결시켰다.⁸⁾

Max Weber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Calvin의 예정설에 따라 구원을 받기 위해 금욕주의와 일에 헌신하는 생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베버테제(Weber’s Thesis, 막스 베버의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제)를 제시하였다.⁹⁾

5) John R. W.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1992), 132.

6) Paul Davi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서울: 디모데, 2007), 154-156.

7) Gustaf Wingren, *Luther on Vocation* (St. Louis, MO.: Concordia Press, 1975); D. T. Hall. & D. E. Chandler,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 (2005): 155-176.

8) 임현만, “일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보는 이차적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 (2009): 45.

9)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종선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고려원: 1996), 13.

Davidson과 Caddell¹⁰⁾은 이러한 Weber의 주장을 따라, ‘우리 모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와 상관없이 그 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고 하였다. 이는 소명이란 하나님이 일과 관련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명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John Calvin¹¹⁾은 교회 사역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만이 아는 내적 부름과 교회 공동체의 부름에 해당하는 외적 부름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James A. Beebe¹²⁾는 하나님의 소명을 내적 명령 혹은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으로 구분했으며, John R. W. Stott¹³⁾는 일반적 소명과 특별한 소명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것이며, 특별한 소명은 사역자 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Ben C. John¹⁴⁾은 창세전에 모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보편적 소명과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회 직무를 감당하도록 목회자를 부르시는 특별한 소명 또는 공공의 소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John Polhill¹⁵⁾은 가장 보편적으로 구분하는 일차적 소명과 이차적 소명에 대해서 일차적 소명은 주님에 의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소명이고, 이차적 소명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받는 소명이라고 하였다. 이차적 소명은 일차적 소명에 반응하여 행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에 일차적 소명

10) J. C. Davidson & D. P. Caddell,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1994):135-147.

11)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V. iii. 11, OS V, 52.

12) James A. Beebe, *The Pastoral Office* (New York: Methodist, 1923), 249.

13)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132.

14) Ben C. John, *Pastoral Spirituality: A Focus For Minist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8), 14-15.

15) John Polhill, “Toward A Biblical View of Call,” in *Preparing for Christian Ministry: An Evangelical Approach*, eds., David P. Gushee & Walter C. Jackson (Wheaton, IL.: Victor, 1996), 72-78.

이 항상 우선되어야 하며, 이차적 소명과 결코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구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소명이란 구원에로의 부르시는 일반적 소명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 사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개인적 혹은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 교회로부터의 확증을 필요로 한다.

최근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어온 소명을 좀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¹⁶⁾ Wrzesniewski 등¹⁷⁾은 Bellah, Madsen, Sullivan, Swidler와 Tipton¹⁸⁾이 제시한 일에 대한 세 가지 개념에 근거하여 소명을 직업(job) 및 진로(career)와 구분하면서 재정적 이익 또는 경력 발달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깊은 충만함을 얻고 더 큰 선(the greater good)에 기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며, 자신의 일을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Hall과 Chandler¹⁹⁾는 소명을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지각하는 일”로 정의하였고, 소명의 네 가지 차원 - 소명의 원천, 소명을 통해 기여하고자 하는 대상,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과 소명의 의미 - 을 통해 소명에 대한 관점을 기독교적 관점과 세속적 관점으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Dik과 Duffy²⁰⁾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언

16) M. F. Steger, N. K. Pickering, J. Y. Shin, & B. J. Dik,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 (2010): 82-96.

17) A. Wrzesniewski, C. McCauley, P. Rozin, & B. Schwartz, “Jobs, Careers,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1997): 21-33.

18) R. N. Bellah, R. Madsen, W. M. Sullivan, A. Swidler, & S. M. Tipton, *Habits of the Hear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45-62.

19) Hall & Chandler, “Psychological Success,” 155-176.

20) B. J. Dik & R. D. Duffy,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 (2009): 424-450.

급했던 소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일반적 관점을 포괄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소명의 첫 번째 차원은 '초월적 부름(transcendent summons)'이며,²¹⁾ 두 번째 차원은 '목적/의미(purpose/meaning)'로 삶에서의 특정 역할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그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소명의 세 번째 차원은 '친사회적 지향(prosocial orientation)'으로 공익 또는 사회의 안녕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기여하는 것을 뜻한다.²²⁾

2) 소명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소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경험적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목회자들의 소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James A. Bryant²³⁾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흑인을 대상으로 한 목회사역에서 소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Daniel W. Thompson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미국 남침례교의 목회자들에 대한 멘토링과 목회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소명은 목회사역을 향상시키는 촉매작용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²⁴⁾ David K. Hormenoo²⁵⁾ 또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아프리카의 교회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소명은 목회자의 권

21) B. J. Dik, R. D. Duffy, & B. M. Eldridge, "Calling and Vocation in Career Counseling: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Meaningful 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2009): 625-632.

22) Dik, Duffy, & Eldridge, "Calling and Vocation in Career Counseling," 625-632.

23) James A. Bryant, "Journeys along Damascus Road: Black Ministers, the Call, and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 (Ph.D. diss., Brown University, 2002), 6-78.

24) Daniel W. Thomps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Functions and Personality Temperaments of Seminarians Called into Vocational Ministry"(Ed.D. diss.,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2), 23-88.

25) David K. Hormenoo, "A Model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 for Training Pastors and Church Leaders in Ghana" (Ph.D. diss.,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1). 35-66.

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위의 3편의 박사학위 논문은 목회소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었지만 목회소명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목회적 소명에 대한 측정 척도가 국내외적으로 미미한 가운데 김홍배²⁶⁾에 의해서 한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소명척도를 개발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그는 목회소명의 관련변인을 15개로 선정하여 내용적합성과 타당도 과정을 거쳐 최종 10개(리더십, 열정, 결실, 믿음, 긍휼, 메시지, 환경, 부르심, 돌봄, 서원)를 확정하였음을 본다. 그가 한국 목회자의 소명 검증에 위해서 의미 있는 척도 개발을 하였지만, 특별 소명만을 다루었기에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측정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소명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도구는 사회과학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최근에 개발을 많이 시도하고 있음을 본다. Steger 등²⁷⁾에 의해서 대학생의 직업관에 관련하여 연구가 시행되었고, Davidson & Caddell²⁸⁾에 의해서 성인에 관련된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두 연구 모두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일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ik, Eldridge와 Steger²⁹⁾는 소명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여 발표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후속 논문을 발표하였다. Dik, Eldridge와

26) 이홍배, “목회자 소명검사의 개발”(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2007), 1-100.

27) Steger, Pickering, Shin, & Dik,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82-96.

28) Davidson & Caddell,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135-147.

29) B. J. Dik, B. M. Eldridge, & M. F. Steger,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s Questionnaire(CVQ),” Paper presented to the 11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2008); B. J. Dik, B. M. Eldridge, M. F. Steger, & R. D. Duff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and Brief Calling Scale(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 no. 3(2012): 242-262.

Steger 개발한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척도는 가장 보편화된 척도로 사용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심예린³⁰⁾에 의해 보완되어 한국판 소명척도로 사용되게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자아탄력성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자아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은 라틴어 *resilio*에서 유래한 말로, 물체의 신축적이며 유연한 성질을 가르칠 때 사용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려운 상황이나 질병으로부터 신속하고 강인하게 하는 능력”, “건강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질병, 변화, 불행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된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에 대한 논의는 Rutter³¹⁾와 Garmezy³²⁾가 빈곤과 가정불화 및 정신병력을 가진 부모 등의 위험요소에 노출된 아동을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고위험 환경 속에서도 환경적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낸 아동들은 자아가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 Block³³⁾에 의해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역동적 성격과정에 대한 이론적 기반으로 구축되어 자아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30) 심예린, “한국판 소명 척도(CVQ-K)”,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4호 (2012): 847-872.

31) Michael Rutter,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ic* 147 (1985): 598-611.

32) N. Z. Garmezy,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Studying Lo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eds., D. D. Funder, R. D. Park, C. Tomlinson-Keeseey, & K. Widama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3), 377-398.

33) J. Block &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e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no. 2(1996): 349-361.

게 되었다.

Block과 Kremen³⁴⁾은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도 자아통제 수준을 변화시켜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자아통제 능력이란 연속적인 개념으로써,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아를 과소통제하거나 통제수준을 더 높이는 과다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하나는 자아탄력성을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고, 탄력성의 발현을 돕거나 저해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요인 중심적 연구가 있으며, 다른 방향의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고 탄력성을 지닌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의 차이를 검토하는 인물 중심적 연구가 있다.³⁵⁾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인지 사회 개인영역과 관련한 문제해결에서의 융통성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대한 긴장을 인내하여 자아통제 수준을 조절하는 역동적 능력으로 불안과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자아탄력성 선행연구

1970년대 초·중반에 심리학 분야에서 탄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34) Block & Kremen, "IQ and Ego-Resilience," 362.

35) J. H. Block &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ed., W. A. Collins (Hillsdale, NJ.: Erlbaum, 1980), 39-101.

가 시작된 이후 1990년 초에 이르러 자아탄력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 주제들을 보면, 직무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잃지 않고 자아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 이러한 연구는 역경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자아탄력성의 예측 변인을 확인하고, 적응에 따른 유연한 마음자세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 높은 인지능력, 긍정적 성격, 긍정적 자기개념 등의 개인 변인과 부모양육 행동, 부모애착, 가족의 기대나 참여, 가족응집력, 온정적인 가정환경 등의 가정 변인과 사회적 지지나 네트워크 형성 등의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본다.³⁷⁾ 정신건강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우울과 불안수준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³⁸⁾ 그뿐만 아니라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³⁹⁾를 비롯해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36) W. B., Schaufeli & A. B. Bakker,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 (2004): 293-315; 박현주 · 김봉환, "상담자의 성인애착유형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1호(2010): 33-52.

37) M. M. Tugade & B. L. Fredrickson.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no. 2 (2004): 320-333; 김경민,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제25권(2010): 40-74.

38) 이영아, "여성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여성」 제16권 4호 (2011): 517-530.

39) 손보영 · 김수정 · 박지아 · 김양희,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1호 (2012): 149-173.

분석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기독교인 접근으로는 김미경⁴⁰⁾이 자아탄력을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연구는 있지만, 아직까지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3) 탈진의 개념이해 및 선행연구

(1) 탈진의 개념이해

탈진이라는 용어가 구미(歐美)와 한국 교회사역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인데, 이 용어의 유래는 20세기 중반 이후 영국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Greene⁴¹⁾이 쓴 *A Burnt-Out Case* 소설에서 아침에 염증을 느끼는 카톨릭 건축가가 자신의 직무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환멸을 느끼고 탈진되어 아프리카 밀림으로 떠나게 된다는 말이 전조가 되어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탈진이라는 개념에 대한 언급은 개업 의사나 시사해설가에 의해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어 왔지만,⁴²⁾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논의는 1978년에 정신분석학자 Freudenberger가 탈진증후군(burnout syndrome)에 관한 논문을 발표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직업으로 인한 정서적 · 신체적 피곤함, 민감(irritability), 냉소주의(cynicism)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탈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Freudenberger에 따르면, 탈진이란 과도한 요구에 의해 에너지, 힘 또는 자원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지치고 고갈되어 버린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기대하였던 성과

40) 김미경,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 (2011): 74-100.

41) Graham Greene, *A Burnt-Out Case* (New York: Penguin Books, 1977), 42-68.

42) C. Maslach, W. B. Schaufeli, M. P. Leiter,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ical Society* 52 (2001): 397-422.

나 보상도 없이 인간적 회의감으로 좌절감을 겪는 상태이다.⁴³⁾

1980대 초에 탈진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실시한 사회심리학자인 Maslach은 Freudenberger의 탈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정서적인 측면을 간과했다고 비평하였다. 그리고 Maslach은 탈진이란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depersionalization), 개인 성취감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대인 관련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의 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탈진에 관하여 장기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로써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문제를 도와주는 서비스 계통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의 에너지 고갈상태라고 하였다.⁴⁴⁾ 그리고 Cherniss⁴⁵⁾는 탈진을 전문직 종사자의 태도 및 행동이 직무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인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Edelwich와 Brodsky⁴⁶⁾는 업무상황의 결과로 이상과 에너지, 목적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Pines와 Keinan⁴⁷⁾은 탈진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직무긴장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Berger⁴⁸⁾는 스트레스의 단기 반응인 긴장과 구분하여 탈진을 정서적, 정신적인 탈진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43) H. J. Freudenberger, "Staff Burn 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 (1974): 159-165.

44) C. Maslach, *Burnout the Cost of Car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2), 189-192.

45) C. Cherniss, *Professional Burnout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0), 45-68.

46) A. Edelwich & D. Brodsky, *Burn-out: Stages of Disillusionment in the Helping Professions*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1980), 245-268.

47) A. M. Pines & G. Keinan, "Stress & Burnout: The Significant Difference,"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 39, no. 3(2005): 625-674.

48) C. Berger, "Mental Stress on Harvester Operators," in *Proceedings of the Austro2003 Meeting eds., Limbeck-Lilienau, Steinmuller & Stampfer*, (October 2003): 5-9.

이와 같이 탈진에 대한 정의는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본다.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탈진에 대한 정의는, Maslach와 Jackson⁴⁹⁾이 주장하는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개인적 성취감(lack of sense of personal accomplishment) 감소를 주된 증상으로 수반하는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정의한다.

탈진의 원인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경과를 보면, 어느 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매우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사역에게 발생하는 탈진의 유발요인으로는 사역자의 개인적 특성, 사역 환경의 특성, 대상자 특성, 전문적 경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난다.⁵⁰⁾

(2) 탈진에 관한 선행연구

1980대 초에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탈진 또는 소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목회자들의 탈진에 관한 연구 또한 시작되었다.

Kehl⁵¹⁾은 기독교 저널을 통해서 목회자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나 단순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길 경우, 사역현장에서 자신들의 자기중심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될 때 쇠약해져서 결국에는 탈진하게 된다고 피력하였다. 그리고 1983년에 Paul Martin⁵²⁾은 선교단체 전문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그는 연구를 통해서 사역자들의 탈진 증상이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사역자의 탈진을

49) C. Maslach & S. E.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1981): 99-133.

50) C. Maslach, W. B. Schaufeli, & M. Leiter,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2001): 397-422.

51) D. G. Kehl, "Burnout: The Risk of Reaching too High," *Christianity Today* 20 (1981): 26-28.

52) Paul R. Martin. "Analytical Study of Burnout Syndrome as it Occurs Among Parachurch Professionals"(Ph. D. diss., University of Pittsburgh, 1983), 187.

영적 침체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Peter Kaldor와 Rod Bullpitt⁵³⁾의 연구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 개신교의 지도자 79%가 탈진되었거나 탈진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들의 탈진은 질병과 여러 종류의 피로감을 가져오게 하고, 심각한 관계 문제를 발생하게하며 영성과 믿음생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⁵⁴⁾ 한국에서 목회자 탈진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초부터 시작하여 매년 석사와 박사 논문과 학회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탈진에 많이 노출된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한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진에 관한 연구는 담임교역자 중심이며 치유 사역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겠다.⁵⁵⁾ 하지만 일반 청소년 지도자 탈진에 관한 논문은 수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학교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 탈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조사연구 방법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를 모집단으로 하되, 교단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표집대상을 서울과 경기도지역 110명, 충청도지역 27명, 전라도지역 26명, 경상도지역 27명, 강원도 지역 10명을 선정하여 조사·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 20일 -

53) P. Kaldor & R. Bullpitt, *Burnout in Church Leaders* (Adelaide, South Australia: Open book Publishers, 2004), 29-30.

54) 김준수, “목회자 스트레스와 탈진”,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8권 (2009): 39-48.

55) 이용우, “목회자의 탈진과 성격유형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2), 1-120.

8월12일까지 235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220명 중에 누락 대상자 18명과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한 200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되었다.

(1) 조사도구의 구성

① 소명의식 척도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소명척도는 Dik, Eldridge와 Steger (2008)의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를 심예린(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소명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되었다. 한국판 소명척도의 하위척도는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 지향-존재의 3개 하위척도로 총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명의식 척도는 총 3개의 하위 요인을 가지며, 12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별 척도의 측정내용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②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1961/1978)에 의해 개념화되어 고안된 척도로써, 그동안 관찰자에 의해 100개의 목록을 사용한 Q-sort(CAQ)를 통해 평정되었으나, 실제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다수의 평정자를 요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Klohnen(1996)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Q-sort(CAQ)의 자아탄력성 문항과 20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 척도와 상관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개의 문항을 추려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 타당화 하였다. 이에 박현진(1996)이 번역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4개의 하위 요인을 가지며, 29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별 척도의 측정 내용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③ 탈진 척도

탈진 척도는 Maslach와 Jackson(1981)의 이론을 근거로 Maslach가 개발한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와 김철(2010) 청소년지도사의 탈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탈진 척도는 총 5개의 하위 요인을 가지며, 35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별 척도의 측정내용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도구

	하위변인	측정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소명의식	초월적 부름-존재	1, 3*, 5, 11	4	.731
	목적/의미-존재	2, 7, 9, 12	4	.753
	친사회적 지향-존재	4, 6, 8, 10	4	.823
	소계		12	.769
자아탄력성	자신감	7*,10*,11*,12*,13*,22*,23*,24*,26*	9	.823
	대인관계 효율성	3*,4*,5*,8*,9*,14*,15*,21*	8	.854
	낙관적 태도	1, 2*,6*,16,17*,18,20*,25*,28,29*	10	.832
	분노조절	19*,27*	2	.654
소계		29	.791	
탈진	정서적 소모	1,2,3,4,5,6,7,8,9,10,11	11	.922
	사역에 대한 회의	12,13,14,15,16,17,18,19,20,21,22	11	.912
	청소년지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	23,24,25	3	.743
	부정적 대인관계로 확장	26,27,28,29*,30*	5	.644
	신체화 증상	31,32,33,34,35	5	.832
	소계		35	.811

주. *: 역채점 문항

2) 자료분석의 기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적용된 주요 통계기법은 SPSS WIN(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검증을 위해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인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3. 연구의 결과 분석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전체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전체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에서 남성165명(82.5%)이 여성35명(17.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20-30대가 161명(80.5%)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직분은 전도사가 131명(65.5%)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으며, 사역 경력은 3년-5년 미만인 77명(3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청소년 지도자의 소명의식, 자아탄력성, 탈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가운데는 목적/의미-존재(M=12.342)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아 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낙관적 태도(M=37.153)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탈진의 하위요인에서는 정서적 소모(M=32.072)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2〉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전체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내용	변인		M	SD
성별	남	165명(82.5%)	소명 의식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지향-존재	10,514	2,422
	여	35명(17.5%)				
연령	20대	79(39.5%)	자아 탄력성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32,682	4,843
	30대	82(41%)				
	40대 이상	39(19.5%)				
학력	4년대재,졸 대학원과정 이상	113(56.5%) 87(43.5%)	탈진	정서적소모 사역에 대한 회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 확장 신체화 증상	32,072	8,124
직분	전도사 목사	131명(65.5%) 69명(34.5%)				
경력	6개월-1년 미만	24명(12%)	탈진	정서적소모 사역에 대한 회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 확장 신체화 증상	27,521	7,532
	1년-2년 미만	44명(22%)				
	3년-5년 미만	77명(38.5%)				
	6년-10년	36명(18%)				
	10년 이상	19명(9.5%)				

2)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 및 자아탄력성과 탈진의 상관관계

청소년사역자의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정도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첫째, 청소년사역자의 소명의식과 탈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명의식과 탈진의 각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초월적 부름-존재는 탈진의 하위요인 정서적 소모($r=-.332, p<01$), 사역에 대한 회의($r=-.431, p<01$),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r=-.482, p<01$),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r=-.321, p<01$), 신체화 증상($r=-.193, p<05$) 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목적/의미-존재는 탈진의 하위요인 정서적 소모($r=-.412, p<01$), 사역에 대한 회의($r=-.262, p<01$),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

도($r=-.462, p<01$),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r=-.362, p<01$), 신체화 증상($r=-.271, p<01$) 에서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친사회적지향-존재는 탈진의 하위요인 정서적 소모($r=-.372, p<01$), 사역에 대한 회의($r=-.201, p<01$),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r=-.521, p<01$),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r=-.282, p<01$), 신체화 증상($r=-.231, p<01$) 에서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 사역자의 자아탄력성과 탈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자신감은 탈진의 하위요인 정서적 소모($r=-.554, p<01$), 사역에 대한 회의($r=-.572, p<01$),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r=-.562, p<01$),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r=-.573, p<01$), 신체화 증상($r=-.452, p<01$) 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대인관계 효용성은 탈진의 하위요인 정서적 소모($r=-.443, p<01$), 사역에 대한 회의($r=-.432, p<01$),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r=-.481, p<01$),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r=-.283, p<01$), 신체화 증상($r=-.501, p<01$)에서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대인관계 낙관적 태도는 탈진의 하위요인 정서적 소모($r=-.523, p<01$), 사역에 대한 회의($r=-.571, p<01$),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r=-.441, p<01$),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r=-.433, p<01$), 신체화 증상($r=-.284, p<01$) 에서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분노조절은 탈진의 하위요인 정서적 소모($r=-.423, p<01$),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r=-.202, p<05$),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r=-.432, p<01$), 신체화 증상($r=-.292, p<01$) 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사역에 대한 회의($r=.341, p<01$)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3)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소명의식			자아탄력성				탈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명 의 식	1. 초월적 부름-존재	1.000											
	2. 목적/의미- 존재	.583 **	1.000										
	3. 친사회적지 향-존재	.542 **	.612 **	1.000									
자아 탄 력 성	4. 자신감	.542 **	.502 **	-.564 **	1.000								
	5. 대인관계 효율성	.483 **	.732 **	-.563 **	.642 **	1.000							
	6. 낙관적 태도	-.552 **	-.564 **	-.473 **	.673 **	.532 **	1.000						
	7. 분노조절	.194 *	.231 **	.192 *	.452 **	.283 **	.353 **	1.000					
탈 진	8. 정서적 소모	-.332 **	-.412 **	-.372 **	-.554 **	-.443 **	-.523 **	-.423 **	1.000				
	9. 사역에 대한 회의	-.431 **	-.262 **	-.201 **	-.572 **	-.432 **	-.571 **	.341 **	.571 **	1.000			
	10.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	-.482 **	-.462 **	-.521 **	-.562 **	-.481 **	-.441 **	-.202 **	.542 **	.612 **	1.000		
	11. 부정적 대인 관계로 확장	-.321 **	-.362 **	-.282 **	-.573 **	-.283 **	-.433 **	-.432 **	.512 **	.512 **	.542 **	1.000	
	12. 신체화 증상	-.193 *	-.271 **	-.231 **	-.452 **	-.501 **	-.284 **	-.292 **	.483 **	.732 **	.387 **	.513 **	1.000

* $p < .05$, ** $p < .01$.

셋째,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과의 각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 자아탄력성, 탈진의 각 변수간에서 $p < .05$ 이상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들의 소명 의식 및 자아 탄력성과 탈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을 본다. 이는 소명감과 자아 탄력성이 낮을수록 탈진이 증가하는 것

을 의미하며, 선행연구 Maslach, Schaufeli, Leiter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3)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 및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지향-존재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탈진의 하위요인 정서적 소모, 사역에 대한 회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신체화 증상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지향-존재를 투입하여 탈진의 정서적 소모($F=13.124, p<.001$) 사역에 대한 회의($F=25.341, p<.001$),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F=32.842, p<.001$),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F=9.724, p<.001$), 신체화 증상($F=8.734, p<.001$)에서 회귀 모형을 세우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명의식이 탈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소명의식은 탈진의 정서적 소모에 대해 R^2 이 .212(adj. $R^2=.183$)으로 21%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서적 소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은 초월적 부름-존재($\beta=-.212, p<.05$) 목적/의미-존재($\beta=-.234, p<.05$), 친사회적지향-존재($\beta=-.194, p<.05$)로 나타났다. 둘째, 사역에 대한 회의에는 소명의식 R^2 이 .354(adj. $R^2=.332$)으로 35%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탈진의 사역에 대한 회의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은 초월적 부름-존재($\beta=-.354, p<.001$) 목적/의미-존재($\beta=-.543, p<.001$), 친사회적지향-존재($\beta=-.264, p<.01$)로 나타났다. 셋째,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는 소명의식 R^2 이 .421(adj. $R^2=.414$)으로 42%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은 초월적 부름-존재($\beta=-.263, p<.01$) 목적/의미-존재($\beta=-.194, p<.05$), 친사회적지향-존재($\beta=-.373, p<.001$)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대인관계로 확장에서는 소명의식 R^2 이 .172(adj. $R^2=.153$)으로 1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적 대인관계로 확장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은 목적/의미-존재($\beta=-.273, p<.05$)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체화 증상에서는 소명의식 R^2 이 .163(adj. $R^2=.142$)으로 16%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체화 증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은 초월적 부름-존재($\beta=-.293, p<.01$) 목적/의미-존재($\beta=-.373, p<.001$)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역자의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탈진의 하위요인 정서적 소모, 사역에 대한 회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신체화 증상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을 투입하여 탈진의 정서적 소모($F=20.782, p<.001$) 사역에 대한 회의($F=24.324, p<.001$),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F=22.432, p<.001$),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F=32.284, p<.001$), 신체화 증상($F=14.723, p<.001$)에서 회귀 모형을 세우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탈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아탄력성은 탈진의 정서적 소모에 대해 R^2 이 .362(adj. $R^2=.343$)으로 36%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서적 소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자신감($\beta=-.232, p<.05$), 낙관적 태도($\beta=-.234, p<.05$), 분노조절($\beta=-.192, p<.05$)로 나타났다. 둘째, 사역에 대한 회의에는 자아탄력

성 R^2 이 .384(adj. R^2 =.382)으로 3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탈진의 사역에 대한 회의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아 탄력성의 하위 요인은 자신감(β =-.314, p <.01), 낙관적 태도(β =-.272, p <.01)로 나타났다. 셋째,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는 자아탄력성 R^2 이 .383(adj. R^2 =.364)으로 3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명의식의 하위 요인은 자신감(β =-.312, p <.01), 대인관계 효율성(β =-.374, p <.001)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대인관계로 확장에서는 자아 탄력성 R^2 이 .482(adj. R^2 =.453)으로 4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적 대인관계로 확장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아 탄력성의 하위 요인은 대인관계 효율성(β =-.164, p <.05), 낙관적 태도(β =-.362, p <.001), 분노조절(β =-.363, p <.001)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체화 증상에서는 자아탄력성 R^2 이 .283(adj. R^2 =.272)으로 2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체화 증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은 대인관계 효율성(β =-.192, p <.05), 낙관적 태도(β =-.283, p <.01)로 나타났다.

〈표 4〉소명의식 및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변수	탈진					
	정서적 소모 β	사역에 대한 회의 β	사역에 대한 부정적 태도 β	부정적 대인관계로 확장 β	신체화 증상 β	
소 명 의 식	초월적 부름-존재	-.212*	-.354***	-.263**	-.141	-.293**
	목적/의미-존재	-.234*	-.543***	-.194*	-.273*	-.373***
	친사회적 지향-존재	-.194*	-.264**	-.373***	-.122	-.114
	R^2	.212	.354	.421	.172	.163
	adj. R^2	.183	.332	.414	.153	.142
	F	13.124***	25.341***	32.842***	9.724***	8.734***
자 아 탄 력 성	자신감	-.232*	-.314**	-.312**	-.142	-.112
	대인관계 효율성	-.134	-.152	-.374***	-.164*	-.192*
	낙관적 태도	-.234*	-.272**	-.042	-.362***	-.283**
	분노조절	-.192*	-.042	.052	-.363***	-.092
	R^2	.362	.384	.383	.482	.283
	adj. R^2	.343	.382	.364	.453	.272
F	20.782***	24.324***	22.432***	32.284***	14.723***	

* p <.05, ** p <.01, *** p <.001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 및 자아탄력성이 탈진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은 탈진을 방지하고 회복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4) 청소년 사역자의 탈진에 대한 소명의식 및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 사역자의 탈진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지향-존재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을 예측 변인으로 하고, 탈진의 전체점수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델1에서 소명의식에 자아탄력성을 포함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진에 대해 R^2 이 .642(adj. R^2 =.624)으로 64%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을 보였으며,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탈진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낙관적 태도(β =-.342, p <.001), 초월적 부름-존재(β =.275, p <.001), 친사회적 지향-존재(β =-.263, p <.001), 대인관계 효율성(β =-.202, p <.01), 자신감(β =-.214, p <.05), 목적/의미-존재(β =-.162, p <.05), 분노조절(β =-.113, p <.05) 순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여 탈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R^2 이 .562(adj. R^2 =.553)로 55%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낙관적 태도(β =-.332, p <.001), 자신감(β =-.323, p <.01),

대인관계 효율성($\beta=223, p<.05$)순으로 탈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과 모델2를 비교 할 때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 모두 탈진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탄력성이 소명의식보다 탈진에 상대적으로 더 미친다고 하겠다.

이는 한국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들의 자아강도와 탄력성 정도가 탈진에 영향을 더 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 사역자의 심리적 안녕이 사역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라고 하겠다.

〈표 5〉 탈진에 대한 소명의식 및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

변수			탈진				
			β	<i>t</i>	R^2	<i>adj.R</i> ²	F
모델 1	소명의식 + 자아탄력성	초월적 부름-존재	-.275	4.524***	.642	.624	34.432 ***
		목적/의미-존재	-.162	-2.242*			
		친사회적 지향-존재	-.263	-3.843***			
		자신감	-.214	-2.342*			
		대인관계 효율성	-.202	-2.643**			
		낙관적 태도	-.342	-4.532***			
		분노조절	-.113	-2.121*			
모델 2	자아탄력성	자신감	-.323	-3.234**	.562	.553	40.213 ***
		대인관계 효율성	-.223	-2.632*			
		낙관적 태도	-.332	-3.672***			
		분노조절	-.132	-1.83			

* $p<.05$, ** $p<.01$, *** $p<.001$

Ⅲ. 닫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심리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조사 연

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탈진 수준이 일반 청소년 사역자들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교회 안에서 청소년 사역자 대부분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대해서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역자일수록 사역의 태도 및 위기대처 능력이 높고, 탈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 고취와 자아가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를 위한 심리·영적 안녕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교회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역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교회가 사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진에 대한 예방과 회복 프로그램 또한 연구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도구에 대한 보완과 다양한 연구 대상자에 대한 표집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의 대표성과 일반화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양적연구를 실시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현장을 통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시도되기를 바라며, 예방과 전문화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연구가 실시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 김경민.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제25권 (2010):40-74.
- 김미경.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 (2011): 74-100.
- 김영동. “교회사에 나타난 청소년 사역”.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2011):16-19.
- 김준수. “목회자 스트레스와 탈진”.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8권 (2009): 39-48.
- 박현주 · 김봉환. “상담자의 성인애착유형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1호 (2010): 33-52.
- 서지영. “중학교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관계”.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
- 손보영 · 김수정 · 박지아 · 김양희.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1호 (2012): 149-173.
- 심예린. “한국판 소명 척도(CVQ-K)”.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권4호 (2012): 847-872.
- 이영아. “여성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여성」 제16권4호(2011): 517-530.
- 이용우. “목회자의 탈진과 성격유형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2.
- 이흥배. “목회자 소명검사의 개발”.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2007.
- 임현만. “일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보는 이차적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 (2009): 45.
- Beebe, James A. *The Pastoral Office*. New York: Methodist, 1923.
- Bellah, R. N., R. Madsen, W. M. Sullivan, A. Swidler, & S. M. Tipton. *Habits of the Hear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Ben C. John. *Pastoral Spirituality: A Focus For Minist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8.
- Block, J. &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no.2(1996): 349-361.
- Block, J. H. &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1980): 39-101.
- Bryant, James A. "Journeys along Damascus Road: Black Ministers, the Call, and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 Ph.D. diss., Brown University, 2002.
- Calvin, Joh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V. iii. 11, OS V, 52.
- Cherniss, C. *Professional Burnout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0.
- Cohen, M. A. "The Monetary Value of Saving a High-Risk Yout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 (1998): 5-33.
- Davidson, J. C. & D. P. Caddell.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1994): 135-147.
- Dik, B. J. & R. D. Duffy, & B. M. Eldridge. "Calling and Vocation in Career Counseling: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Meaningful 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2009): 625-632.
- Dik, B. J. & R. D. Duffy.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2009): 424-450.
- Edelwich, A. & D. Brodsky. *Burn-Out: Stages of Disillusionment in the Helping Professions*.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1980.
- Freudenberger, H. J. "Staff Burn 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1974): 159-165.
- Garmezy, N. Z.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Studying lo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Funder*, eds. D. D. Park, R. D. Tomlinson-Keesey, & K. Widama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3.
- Hall, D. T. & D. E. Chandler.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005): 155–176.
- Hormenoo, David K. “A Model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 for Training Pastors and Church Leaders in Ghana.” Ph.D. diss.,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1.
- Kaldor, P. & R. Bullpitt. *Burnout in Church Leaders*. Adelaide, South Australia: Open book Publishers, 2004.
- Kehl, D. G. “Burnout: The Risk of Reaching too High.” *Christianity Today* 20 (1981): 26–28.
- Martin, Paul R. “Analytical Study of Burnout Syndrome as it Occurs Among Parachurch Professionals.” Ph. D. diss., University of Pittsburgh, 1983.
- Maslach, C. & S. E.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1981): 99–133.
- Maslach, C. *Burnout, the Cost of Car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2.
- Maslach, C., W. B. Schaufeli, & M. P. Leiter.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ical Society* 52(2001): 397–422.
- Pines, A. M. & G. Keinan. “Stress & Burnout: The Significant Difference.”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 39, no. 3(2005): 625–674.
- Rutter,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 s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ic* 147(1985): 598–611.
- Schaufeli, W. B. & A. B. Bakker.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2004): 293–315.
- Steger, M. F., N. K. Pickering, J. Y. Shin, & B. J. Dik.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2010): 82–96.
- Stott, John R. W.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1992.
- Thompson, Daniel W.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Functions and Personality Temperaments of Seminarians Called into Vocational Ministry.” Ed.D. diss.,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2.
- Tripp, Paul 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

220 / 복음과 상담 • 제21권

의 동반자』. 서울: 디모데, 2007.

Tugade, M. M. & B. L. Fredrickson.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no. 2(2004): 320–333.

Weber, M.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종선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고려원: 1996.

Wrzesniewski, A., C. McCauley, P. Rozin, & B. Schwartz. "Jobs, Careers,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1997): 21–33.

【 Abstract 】

The Effects of Calling and Ego-Resilience of Christian Youth Workers on Burnout

Yoon-Sun Oh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and better understand the effects of Christian youth worker's calling and ego-resilience on burnou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e selected workers who were in charge of youth workers in Church.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answer sheets from 200 respondents were analyzed.

This study confirme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revealed that Christian youth worker's calling and ego-resilience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burnout.

Christian youth worker's calling had a negative effect on burnout. When the youth workers had higher levels of calling, the degree of its sub-factors and total score of burnout were lower.

Second, Christian youth worker's ego-resilience had a negative effect on burnout. When the youth workers had higher levels of ego-resilience, the degree of its sub-factors and total score of burnout were lower. The youth worker's ego-resilience had a greater influence than did ego-resilience on burnout.

These results can help to solve and prevent the problems of burnout amongst youth workers by bette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variables which have an effect on them.

Key words: calling, ego-resilience, burnout, Youth workers, negative effect